
對 페루 단감 검역타결에 따른 페루 단감 시장 조사

2020.05

1. 페루 과일 시장현황

- 페루는 신선농산물 수출강국으로 포도, 아보카도, 망고, 감귤, 블루베리 등 다양한 품종이 생산됨
 - 페루 수출자협회(ADEX)에 따르면 2019년 과일의 경우 수출액은 35억 3,500만 달러(한화 약 4조 3,162억 원)에 달함¹⁾
 - 이 중 포도가 8억 7,400만 달러(한화 약 1조 671억 원) 수출되어 전체 24.7% 비중을 차지함
 - 아보카도가 7억 5,200만 달러(한화 약 9,181억 원) 규모로 수출되었으며, 망고, 감귤, 블루베리 등이 뒤따름
 -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, 네덜란드가 있으며, 이들 국가로의 수출 비중은 전체 62.3%를 차지함
 - 이외에도 영국, 스페인, 중국, 홍콩 등으로 과일을 수출하고 있음

- 페루의 수입 신선농산물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25억 3,806만 2,890달러(한화 약 3조 989억 7,478만 원)로 집계됨
 - 주요 수입국으로는 미국, 아르헨티나, 캐나다 등이 있으며, 미국산 신선농산물 수입액은 9억 5,490만 1,390달러(한화 약 1조 1,659억 3,459만 원)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
 - 뒤이어 아르헨티나(19.8%), 캐나다(16.3%), 칠레(4.4%) 등에서 신선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며, 미주 국가를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음

〈표 1-1〉 페루 신선농산물 수입규모(2018)

| | | (단위 : 달러, %)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주요 수입국 | 수입액 | 비중 | |
| 전체국가 | 2,538,062,890 | 100.0 | |
| 1 미국 | 954,901,390 | 37.6 | |
| 2 아르헨티나 | 503,180,960 | 19.8 | |
| 3 캐나다 | 414,033,460 | 16.3 | |
| 4 칠레 | 112,271,210 | 4.4 | |
| 5 우루과이 | 10,498,150 | 4.1 | |

1) 페루 현지매체 Andina(andina.pe)

| | | | |
|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|
| 6 | 브라질 | 100,616,650 | 4.0 |
| 7 | 볼리비아 | 66,060,920 | 2.6 |
| 8 | 러시아 | 31,348,590 | 1.2 |
| 9 | 멕시코 | 28,789,610 | 1.1 |
| 10 | 스리랑카 | 28,689,040 | 1.1 |

* 출처 :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

- 동년 과일류는 HS Code 08류를 기준으로 87,246톤을 수입하였으며, 수입액은 8,903만 4,000달러(한화 약 1,087억 1,051만 원)로 집계됨

<표 1-2> 페루 과일(HS Code 08류) 수입규모(2018)

(단위 : 톤, 천 달러)

| 구분 | 수입량 | 수입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전체 | 87,246 | 89,034 |
| 1 사과·배·마르멜로 | 65,785 | 54,837 |
| 2 포도 | 9,138 | 20,703 |
| 3 살구·체리·복숭아 | 5,984 | 5,527 |
| 4 그 밖의 과실 | 3,208 | 4,502 |
| 5 감귤류 | 2,898 | 3,278 |
| 6 멜론(수박 포함)과 포포(파파야) | 87 | 159 |
| 7 대추야자·무화과·파인애플·아보카도 구아바·망고·망고스틴 | 56 | 27 |
| 8 바나나 | 0 | 1 |

* 주 : HS Code 0803호(바나나), 0804호(대추야자·무화과·파인애플·아보카도·구아바·망고·망고스틴), 0805호(감귤류), 0806호(포도), 0807호(멜론과 포포), 0808호(사과·배·마르멜로), 0809호(살구·체리·복숭아), 0810호(그 밖의 과실)

* 출처 : ITC

- 신선 감이 속한 ‘그 밖의 과실(HS Code 0810호)’는 2019년 기준 2,946톤 수입된 가운데, 신선 감의 수입규모는 집계되지 않음
 - 키위가 2,935톤 수입되며 99.6%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

〈표 1-3〉 페루 기타 과일 수입 추이(2015~2019)

(단위 : 톤, 천달러)

| 구분 | 2015 | | 2016 | | 2017 | | 2018 | | 2019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물량 | 금액 | 물량 | 금액 | 물량 | 금액 | 물량 | 금액 | 물량 | 금액 |
| 전체 | 2,503 | 2,747 | 2,330 | 2,130 | 2,846 | 2,862 | 3,208 | 3,278 | 2,946 | 2,735 |
| - 키위 | 2,453 | 2,491 | 2,305 | 1,917 | 2,789 | 2,589 | 3,187 | 3,210 | 2,935 | 2,613 |
| - 딸기 | 26 | 231 | 25 | 213 | 30 | 252 | 5 | 50 | 11 | 122 |
| - 기타 (대추 등) | 24 | 25 | N/A | N/A | 27 | 22 | 16 | 18 | N/A | N/A |
| ∴ | | | | | | | | | | |
| - 감 | N/A | N/A | N/A | N/A | N/A | N/A | N/A | N/A | N/A | N/A |

* 주 : HS Code 0810호(그 밖의 과실)

* 출처 : ITC

□ 페루에서 감은 비교적 최근에 재배되기 시작하였으며, 주로 유럽 수출용으로 사용

- 페루 현지매체²⁾에 따르면 2019년 페루 리마, 이카 등 약 200ha에서 감을 시험적으로 재배하고 있다고 발표
 - 이는 주로 스페인 생산업체에서 유럽시장에 공급할 감 생산량을 충당하기 위해 남반구에 위치한 페루에서 감을 생산하여 북반구 시장으로 유통함으로써 공급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목적임³⁾
 - 현지 생산자들은 타 작물에 비해 해충 및 질병이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고 생산비용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여, 감 재배를 더욱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음
 - 해당 품종은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감으로, 끝이 뾰족한 원추형 과형으로 평균 과중은 250g임⁴⁾
 - 또한 한국산 단감과 달리 숙성 후에도 짙은 맛이 남아 있어 탈삼 과정을 거쳐야 함
 - 페루의 감 작기는 페루 리마 북부 후아랄(Huaral) 지역을 기준으로 3월에서 8월까지 재배됨⁵⁾

2) 페루 농업관련 매체(www.redagricola.com/pe)

3) 신선농산물 전문매체(www.freshplaza.cn)

4) 스페인 원산지인증 감 소개 사이트(persimon.eu)

5) 페루 감 생산업체 F社 홈페이지(www.fukudagroup.com)

<그림 1-1> 페루 감 재배모습



로조 브릴란트 품종

감 재배지

* 출처 : 페루 농업비즈니스 커뮤니티(www.agroforum.pe)

- 최근 5년간 페루의 신선 감(HS Code 0810.70) 수입규모는 집계되지 않음
 - 전 세계 주요 감 생산국의 수출현황을 분석한 결과, 페루로의 수출량 또한 집계되지 않음

<표 1-4> 주요 감 생산국 수출 추이(2016~2018)

(단위 : 톤)

| 구분 | 2016 | | | 2017 | | | 2018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생산량 | 수출량 | 對페루 수출량 | 생산량 | 수출량 | 對페루 수출량 | 생산량 | 수출량 | 對페루 수출량 |
| 1 중국 | 2,967,300 | 55,642 | N/A | 3,029,000 | 66,626 | N/A | 3,084,458 | 58,673 | N/A |
| 2 스페인 | 321,247 | 194,865 | N/A | 404,131 | 215,295 | N/A | 492,320 | 171,788 | N/A |
| 3 대한민국 | 286,388 | 6,840 | N/A | 298,382 | 7,085 | N/A | 346,679 | 5,736 | N/A |
| 4 일본 | 232,900 | 640 | N/A | 224,900 | 640 | N/A | 208,000 | 694 | N/A |
| 5 아제르바이잔 | 142,920 | 94,202 | N/A | 147,219 | 118,305 | N/A | 160,092 | 150,911 | N/A |
| 6 브라질 | 162,184 | 88 | N/A | 182,185 | 301 | N/A | 156,935 | 203 | N/A |
| 7 대만 | 60,266 | 37 | N/A | 63,115 | 11 | N/A | 84,301 | 69 | N/A |
| 8 우즈베키스탄 | 69,773 | N/A | N/A | 74,906 | 73,006 | N/A | 71,214 | 55,023 | N/A |
| 9 이탈리아 | 48,626 | 4,404 | N/A | 49,675 | 5,574 | N/A | 47,615 | 4,551 | N/A |
| 10 이스라엘 | 28,000 | 4,195 | N/A | 29,000 | N/A | N/A | 27,000 | N/A | N/A |

* 주: 세계농업기구(FAO) 감 생산량 통계는 2018년 자료가 최신 자료임

* 출처 : FAO, ITC (HS code 0810.70)

- 2019년 페루산 신선 감은 수출물량은 1톤에 불과하며, 전량 스페인으로 수출됨
 - 이는 스페인 감 공급업체의 對유럽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것으로 추정됨

〈표 I -5〉 페루 신선 감 수출 추이(2015~2019)

(단위 : 톤, 천달러)

| 구분 | 2015 | | 2016 | | 2017 | | 2018 | | 2019 | |
|--------|------|----|------|----|------|----|------|----|------|----|
| | 물량 | 금액 | 물량 | 금액 | 물량 | 금액 | 물량 | 금액 | 물량 | 금액 |
| 전 세계 | 0 | 1 | N/A | 0 | N/A | 0 | 2 | 31 | 1 | 2 |
| - 스페인 | N/A | 0 | N/A | 0 | N/A | 0 | 1 | 1 | 1 | 2 |
| - 독일 | N/A | 0 | N/A | 0 | N/A | 0 | 0 | 30 | N/A | 0 |
| - 이탈리아 | 0 | 1 | N/A | 0 | N/A | 0 | N/A | 0 | N/A | 0 |

* 주 : HS Code 0810.70(신선 감)

* 출처 : ITC

II. 페루 단감 유통 및 소비 현황

1. 유통현황

□ 페루의 新식품소매채널로 슈퍼마켓, 편의점 등 현대적 유통 채널이 부상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래시장, 소규모 식료품점 등 전통적 채널이 우세함

○ 전통적 유통채널은 전체 시장의 75%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⁶⁾,

- 2019년 기준 전통적 유통채널의 시장규모는 465억 2,160만 솔(한화 약 16조 7123억 원)로, 현대적 유통채널의 3배 규모를 보임

〈표 II -1〉 페루 유통채널별 시장규모(2014~2019)

(단위: 백만 솔)

| 구분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전체 | 47,729.4 | 49,879.5 | 53,271.6 | 56,650.1 | 59,603.2 | 61,940.4 |
| 전통적 유통채널 | 36,290.1 | 38,252.4 | 40,612.3 | 42,953.0 | 45,157.3 | 46,521.6 |
| 현대적 유통채널 | 11,439.2 | 11,627.1 | 12,659.3 | 13,697.0 | 14,445.9 | 15,418.8 |
| - 하이퍼마켓 | 6,452.2 | 6,653.3 | 7,236.1 | 7,670.1 | 8,069.7 | 8,563.8 |
| - 슈퍼마켓 | 4,383.4 | 4,265.4 | 4,497.3 | 4,787.8 | 4,831.0 | 4,955.7 |
| - 포코트마켓 | 509.9 | 554.1 | 605.0 | 644.6 | 696.7 | 731.6 |
| - 할인점 | 93.8 | 108.9 | 173.4 | 302.3 | 465.8 | 672.7 |
| - 편의점 | - | 45.5 | 147.4 | 292.3 | 382.7 | 495.1 |

* 출처: 유로모니터(Euromonitor)

6) 「Peruvian Food Retail Market Continues to Grow」, USD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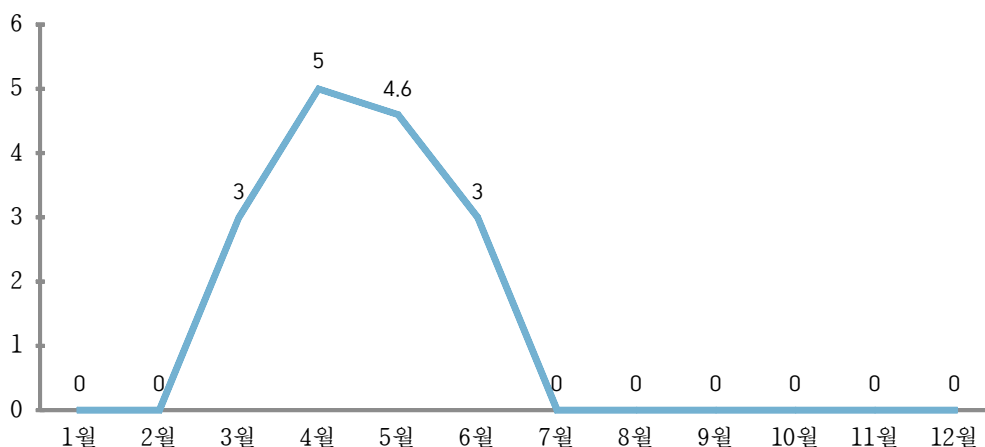
- 재래시장, 소규모 식료품점 등은 도보로 이동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소량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
- 따라서 중산층 이하의 대부분 소비자들이 청과물 등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전통적 채널을 이용하고 있음
- 현대적 유통채널의 시장규모는 2019년 154억 1,880만 솔 (한화 약 5조 5648억 원)로 집계됨
- 수도 리마를 중심으로 현대적 유통채널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웡(Wong), 메트로(Metro), 비반다(Vivanda) 등 대표적인 유통업체에서 감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

□ 페루 수도 리마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인 그란 메르카도 마요리스타 데 리마(Gran Mercado Mayorista de Lima) 시장에서 페루에서 재배된 감이 소매시장으로 유통

- 2019년 기준 3월에서 7월까지 일평균 3~5톤 물량의 감이 해당 도매시장으로 공급됨⁷⁾
- 리마 도매시장에 대량으로 공급된 감은 각각 분배되어 소매시장으로 유통됨

<그림 II-1> 페루 월별 감 평균 도매물량(2019)

(단위 : 톤)



* 주 : 리마 도매시장에서 제공하는 도매물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가공함

* 출처 : 그란 메르카도 마요리스타 데 리마 도매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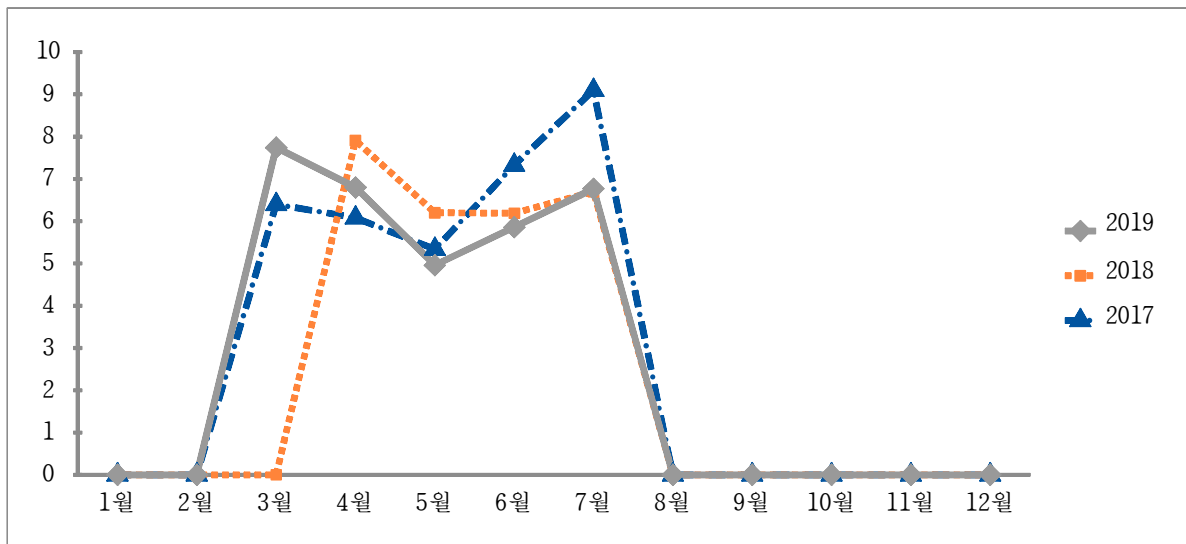
7) 페루 농업통계시스템(siea.minagri.gob.pe)

□ 페루에서 감은 약 5개월 간 유통되며 도매가는 kg 당 6.43솔 (한화 약 2,324원) 수준임

- 리마 도매시장에 따르면 감은 3월부터 물량이 공급되어 7월까지 유통됨
 - 2019년 기준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6.43솔(한화 약 2,324원)로 집계되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
 - 동년 5월 도매가격은 kg당 4.96솔(한화 약 1,792원)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저가에 유통됨

<표 II -2> 페루 월별 감 도매가격 추이

| | | | | | | | | | | | | | (단위 : 솔/kg) |
|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|
| 구분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 평균 |
| 2019 | N/A | N/A | 7.74 | 6.80 | 4.96 | 5.86 | 6.77 | N/A | N/A | N/A | N/A | N/A | 6.43 |
| 2018 | N/A | N/A | N/A | 7.91 | 6.20 | 6.19 | 6.70 | N/A | N/A | N/A | N/A | N/A | 6.75 |
| 2017 | N/A | N/A | 6.40 | 6.08 | 5.34 | 7.33 | 9.10 | N/A | N/A | N/A | N/A | N/A | 6.85 |



* 출처 : 그란 메르카도 마요리스타 데 리마 도매시장

- 도매시장에서 함께 유통되는 망고, 포도 등 페루에서 생산되는 타 농산물에 비해 감은 고가에 유통되고 있음
 - 2019년 망고, 포도의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각각 1.97솔(한화 약 712원), 2.00솔(한화 약 723원)로 집계되어 감 평균 도매가격과 약 3배 이상 차이남

- 망고, 포도는 페루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생산량이 충분하고 유통기간이 길다는 장점 등으로 저가에 유통됨

〈표 II-3〉 페루 감, 망고, 포도 연간 평균 도매가격

(단위 : 솔/kg)

| 구분 | 감 | 망고 | 포도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2019 | 6.43 | 1.97 | 2.00 |
| 2018 | 6.75 | 1.69 | 2.32 |
| 2017 | 6.85 | 1.44 | 2.31 |

* 출처 : 그란 메르카도 마요리스타 데 리마 도매시장

- 온라인 소매채널에서 유통되는 감의 가격은 10~20솔(한화 약 3,621~7,242원)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
- 주요 온라인 쇼핑몰 및 청과물 전문몰에서 감을 판매하고 있으며, 드물게는 일본식품 전문몰에서 일본산 감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

〈그림 II-2〉 페루 소매채널에서 판매되는 감 제품현황

| | |
|---|--|
|  |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판매처 : Wong - 가격 : 12.99솔(한화 약 4,694원)/kg - 원산지 : 미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판매처 : Tuchacrita - 가격 : 10솔(한화 약 3,621원)/kg - 원산지 : 미상 |
|  |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판매처: Frutaldia. - 가격: 20솔(한화 약 7,242원)/kg - 원산지: 미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판매처: Fukustore - 가격: 15솔(한화 약 5,432원)/kg - 원산지: 일본 |

* 출처 : 대형유통업체 Wong社(Wong.pe), 청과물 유통업체 Frutaldia社(frutaldia.com.pe), Tuchacrita社(tuchacrita.pe), 일본식품 유통업체(Fukustore.com.pe)

2. 소비현황

- 페루의 과일, 채소 섭취량은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신선농산물 1인당 소비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
 - 페루 국립통계정보연구소(INEI)는 2017년 기준 페루 인구의 89%가 세계농업기구(FAO)의 일일 과일 및 채소 권장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함⁸⁾
 - 세계농업기구 기준 일인당 일일 섭취량은 400g 이상이 권장되나 페루 소비자 일인당 섭취량은 250g에 불과함

- 현재까지 페루 소비자들에게 단감은 이국적인 농산물로 인식되며 인지도가 매우 낮음
 - 페루 소비자들에게 단감은 외형 상으로 전통과일인 코코나(Cocona)와 유사한 과일로 인식됨⁹⁾
 - 그러나 코코나는 산미가 강한 과일로 단감과 맛과 당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냄
 - 코코나는 단감과 유사하게 붉은 빛을 띠는 과일이며 식감 면에서 아삭한 단감보다는 토마토에 가까움
 - 최근 웡(Wong), 메트로(Metro), 비반다(Vivanda) 등 현대적 유통채널을 통해 감이 유통되며 감에 대한 인지도가 형성되고 있음
 - 스페인 등을 제외하고 일본,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과일로 알려지고 있으나, 한국산 단감의 인지도는 매우 미약한 수준임

8) 페루 현지매체 La Republica(larepublica.pe)

9) 페루 소비자 커뮤니티(www.forosperu.net)

<그림 II -3> 감과 유사한 외형을 가진 페루 전통과일 코코나(cocona)



* 출처 : 페루 식문화 전문매체(cuzcoeats.com)

- 페루 내 유통되는 감은 씨가 없어 섭취가 용이한 편이며 일부 소비자들은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해 후숙하여 섭취함
 - 일반적으로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하며, 다양한 채소, 과일과 함께 샐러드용으로 활용하기도 함
 - 일부 소비자는 감을 후숙한 후 냉동하여 한국의 홍시처럼 섭취하기도 함

Ⅲ. 시사점

- 한국과 페루 간 감 생과실 수출검역 협상이 타결되며 對페루 수출이 가능해짐
 - 2020년 3월 23일부로 선과장 등록 및 저온처리 등의 요건을 충족한 한국산 단감을 페루로 수출할 수 있게 됨¹⁰⁾
 -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, 필리핀, 홍콩 등에 편중되었던 한국산 단감 수출 시장이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됨
 - 본격적인 수출 전 페루 단감 시장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산 단감의 안정적인 시장진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- 페루 신선농산물 시장에서 감은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, 이에 따라 한국산 단감의 인지도 구축을 위한 홍보방안 강구
 - 페루에서 감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재배되기 시작하였으며, 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되어 내수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과일은 아닌 것으로 조사됨
 - 페루의 감 수입규모는 측정이 안 될 정도로 매우 소량인 것으로 판단되며, 페루에서의 감 생산량 또한 규모가 크지 않고, 수출규모 또한 스페인에 한정된 미미한 수준으로 아직까지 페루 단감 시장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음
 - 유통기간도 타 과일보다 상대적으로 짧아, 3월부터 7월 사이 한시적으로 유통되고 있음
 - 따라서, 한국산 단감이 향후 페루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시장은 크지 않지만, 선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있음
 - 현지 시장에서 단감 자체 인지도는 미약한 수준이며, 특히 한국산 단감 인지도는 전무하여 시장진입 초기 인지도 구축이 필요함
 - 초기 시장진입 시 한국산 단감 홍보 이외에 단감 섭취방법 또는 효능

10)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-13호 「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」

등을 소개하며 페루 현지 소비자들에게 단감에 대한 초기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

- 특히 페루 내에서 재배 및 유통되는 감은 떫은 맛이 남아 있는 감으로, 한국산 부유 등 성숙 과정에서 떫은 맛이 사라지는 단감의 특징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

□ 남반구에 위치한 페루의 비(非)유통시기에 한국산 단감을 유통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음

- 한국산 단감의 주 출하기는 9~11월이며 3~7월에 물량이 집중되는 페루와 감 유통시기에 차이가 있음
 - 유통시기를 비교하였을 때 페루로의 단감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, 이 경우 장기보관이 가능하도록 저장성을 향상시키고 운송 중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함
 - 페루의 주요 신선농산물 수입국은 미국, 아르헨티나, 캐나다, 칠레 등 미주 국가로, 페루와 상대적으로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신선농산물 물류운송 상 이점을 지님
 - 따라서 페루 시장진입 시 인근 국가 단감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품질경쟁력을 확보해야 함